

## 10/24(월) 욥기 묵상 42

### 욥기 32:1-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 욥의 긴 독백이 끝나고나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네 개의 발언으로 욥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네 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욥 33:1-22절(엘리후의 등장과 모두 발언), 2) 욥 33:1-33절(엘리후의 첫번째 발언), 3) 욥 34:1-37(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 4) 욥 35:1-16(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 5) 욥 36:1-37:24(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

#### 엘리후의 등장

욥의 마지막 친구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의 이름 만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따르고 있고 그의 부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욥 32: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특이한 것은 그는 갑자기 등장해서 많은 의견을 피력합니다(욥 33-37장). 그러나 욥의 친구들에 대한 책망과 같이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욥 42:7-8,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학자들은 엘리후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엘리후의 말은 긍정적 가치가 없어서 결론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 엘리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그의 말을 욥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보기도 합니다. 즉 욥 38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막을 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엘리후의 의견도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엘리후는 젊은 신학자이자 지식인으로 등장하여서 다소 자부심을 가지고 그가 가진 논리로 통찰력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의견도 세 친구들의 주장대로 인과응보의 원칙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는 진심을 하나 더 붙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 엘리후의 진심

엘리후는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8-9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사심이 없다고 말합니다(20-22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비록 엘리후가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문제이지만 그의 말에 오류가 있는 것은 지금 엘리후는 그가 하는 말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가진 동기가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옳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본인은 깨끗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경우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욥기서의 말씀은 욥과 친구들이 언급한 말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발언했던 한 구절만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욥기 전체의 내용 즉 욥기의 구조와 신학에 대한 더 큰 이해 속에서 한 구절과 친구들의 말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는 엘리후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진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타인의 객관적인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배운 잘못된 지식을 그들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새롭게 깨닫거나 배운 지식이 옳다면 그것은 타인에게도 수긍이 가고 공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독점하고 남들보다 우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잘못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그런 지식과 공동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솔로몬의 표현대로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전 1:9-10,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이천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정립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연구하고 정립해 놓은 책과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정치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국방과 경제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국 교회와 북한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햄든 4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보고타 콜롬비아개혁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